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00호 남계원칠층석탑



### 자신만만 위풍당당

김신영

하늘을 향한 높은 탑신을 따라  
 증생도 기원의 탑을 쌓아 탑신부를 든다  
 비바람 흩어진 존재의 유무에  
 한 층 한 층 기단을 높여가던 쉼의 발원  
 국보 100호 고려의 웅건한 기풍  
 정갈한 기단과 탑신에 서린 정제  
 처마를 따라가니 유연한 선에 이어 추켜올린  
 자신만만한 위풍당당이 장엄하다  
 노반과 복발이 일치한 묘법  
 일체로 합치 이론 통일체  
 간절한 기원을 부르는 탑신부를 돌면  
 두툼한 지붕돌로 안심을 남고  
 맛있는 곡선에서 평화를 누리고  
 치켜 올린 귀퉁이에서 통일체의 몸을 얻어  
 고려의 발원은 하늘로 오르다  
 깊이 울리어 하늘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원 남계원 칠층석탑  
 번영하고 헤량하는 고려 국보는  
 500년 고려의 기풍 백곡이 담겨  
 보국안녕 극락왕생 무병장수  
 기단을 높인 쉼의 발원  
 남계원에 우뚝 솟아오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김신영 시인은... 충북 중원 출생. 1994년 〈동서문학〉으로 등단. 시집 〈화려한 망사버섯의 정원〉, 〈불혹의 묵시록〉 등.

# “대중공의 형식 보완해 총림 추진해야”

## 교구본사 총림 추진 어떻게 봐야 하나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14교구본사 범어사가 총림 설립을 추진한다. 제5교구 범주사도 문도 운영위원회와 교구총회를 통해 총림 설립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무려 4개의 본사가 총림 지정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는 가장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세 사찰이 모두 10월 16일 총무원에 총림 지정을 신청했고, 19일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정기중앙총회에 송부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염불원 설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이 미비해 2년 안에 관련 시설을 보완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이로써 동화사, 쌍계사와 범어사의 총림 지정은 11월 1일 개최하는 제192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실제 총림 지정을 위한 이들 사찰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동화사는 내년 율학승

가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범어사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최근 승가율원 현판식을 가졌다.

쌍계사 역시 경내 염불원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내 암자 국사암에 율학

**동화·쌍계·범어사 총림화 추진 신청서 접수... 총무원의 통과 종합수도원 조성 '긍정 효과' 1인 권한 집중... 견제장치 필요**

승가대학을 설치할 계획이다.

총림 지정을 준비 중인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교계 여론은 비교적 긍정적인

이다. 종합수도원도 총림이 확대되면 종단 수행문화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라는 것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격과 제적승 규모가 큰 본사에서 총림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동화사의 경우 금강선원을 비롯해 9곳의 선원과 파계사 율원 등 8곳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총림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총림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범주사 주지 현조 스님도 “10년 전부터 총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종단 방침과 내부적 요구가 같이 맞물린 것”이라며 “범주사의 사격에 맞춰 총림 지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종단 수행문화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총림 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규정된 총림법은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대중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수좌, 선원장, 율주, 염불원장 등 총림 주요 소임에 대한 추천과 임명권도 가

진다. 대다수의 인사와 종무 행정 권한이 방장 스님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인덕과 명망 가진 인물이 방장 스님으로 주석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통도사에서는 주지 재임을 위해 방장 교체 시도하기도 했으며, 최근 백양사는 방장 스님 임직 후 생긴 갈등으로 불교계 전체 명예를 실추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임회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총림법에는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 총림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지만 총림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관계자도 “쇄신위원회 차원에서 총림법 개정을 위한 좌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총림의 대중공의를 모으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데 주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禪과 대승불교 이타행은 ‘不二’”

### 교육원, 종단 출범 50주년 교수 아사리 세미나

종단 출범 50주년에 맞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은)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출범 50주년 교수 아사리 세미나’를 열고 ▷대승불교 ▷계율과 윤리 ▷선불교 ▷초기불교 ▷잡역불교 부문에서의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살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해명 스님은 선의 가치와 대승불교의 이타행을 주목했다.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후 50년 동안 종단은 지혜와 보살의 자비를 구현하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승가교육과 포교, 역경, 사회 참여 부문에 걸쳐 이 같은 작업이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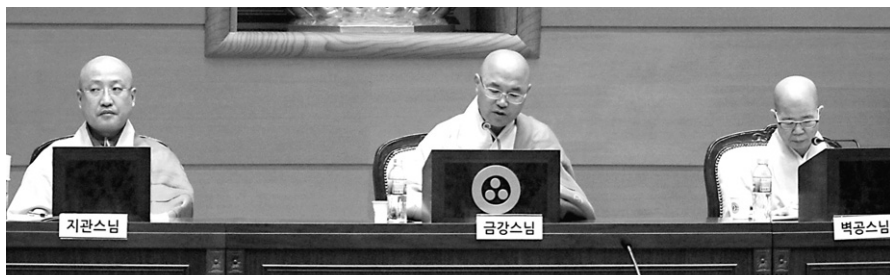
해명 스님은 “승가교육에서 대승불교의 자비정신을 가르치고 포교와 사회 참여를 통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종단의 선의 가치와 대승불교

의 이타행으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새로운 역사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현스님은 ‘종단 출범 50주년과 한국 불교 계율의식의 재고’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계율은 단순히 제도를 넘어 승가정신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이런 점에서 계율의 붕괴는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율의 시대적 한계를 말하기 전에 과거의 계율을 이 시대에 어떻게 수용하고 변화할 것인지 보다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월호 스님은 ‘선불교의 눈으로 본 오늘의 한국불교’를 통해 전통 선 수행을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다른 수행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금강스님은 ‘불교의 사회참여와 조계종단 50년’에서 수행문화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제안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출범 50주년 교수 아사리 세미나’를 열고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추모탑 건립

### 27일 서산 천장암서 제막식... 청정한 가르침·깨달음 상징

한국 불교의 증흥조 경허 선사가 건성 후 보입하고 18년간 주석했던 서산 천장암(회주 웅산)에서 10월 27일 오후 2시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탑 및 추모 기념탑 제막식이 개최된다.

기념탑은 화강암 사각형 기둥에 연꽃 봉오리를 얹어놓은 모양으로, 사각형은 사성체의 진리를, 연꽃은 선사의 청정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또 각 면에는 선사의 열반송과 일원상을 새겨 놓았다.

천장암은 경허 선사는 물론 수월, 해월, 만공 선사도 출가 득도한 수계도량으로 현재 경허 선사가 주석하면서 정진한 1평 남짓한 수행공간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기념탑 건립추진위원장 웅산 스님은 “대선사의 끝없는 정진행과 정신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추모 기념탑 모습.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이날 ‘경허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前 서 울대 명예교수인 최병현 박사가 ‘한국불

교사에서의 경허 선사 위상’을, 이찬관 동국대 명예교수가 ‘경허 선사의 선사’를, 이은운 前 금강불교신문 사장이 ‘경허 선사의 일화에 담긴 선지’를, 허유 한서대 교수가 ‘경허 선사의 풍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제192회 조계종 중앙총회

### 정기회 11월 1일 개최

제192회 조계종 중앙총회 정기회가 오는 11월 1일 열린다.

중앙총회(의장 보선)는 10월 13일자로 ‘제192회 중앙총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내고 정기총회를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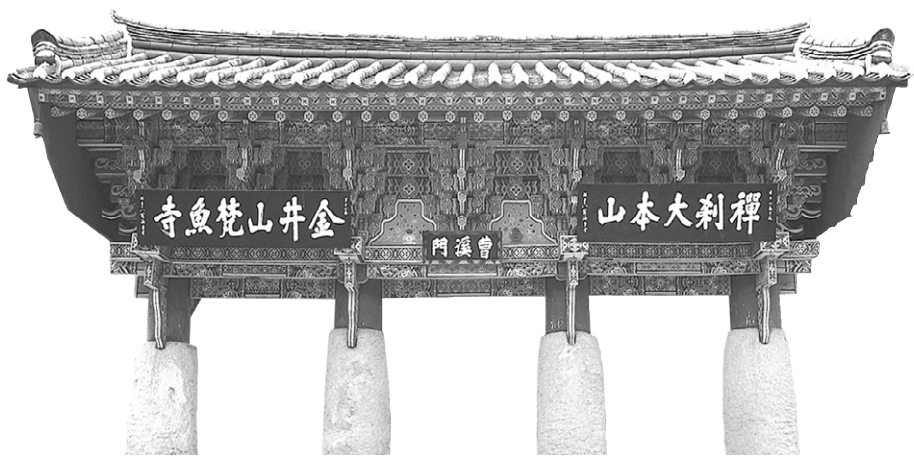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며 2013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원로회의가 부결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한 총법 제·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안은 25일, 종책질하는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종일 기자

#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 경원(經院) 개설

## 불기 2556년 동안거결제 경원 대중모집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律은 부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禪·敎·律의 3개의 다리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불교라는 큰 숲을 2600여년 동안 떠받쳐 왔으며, 한국불교의 저변에 면면히 흐르는 통섭과 융합의 문화는 定慧雙修와 禪敎不二를 통하여 17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禪院의 결제와 더불어 經院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불법 수레의 두 바퀴가 될 것이고, 불교 새의 양 날개가 될 것입니다. 금번 범어사에서는 동산 경원을 개설하고 매 안거기간마다 단일 경전강독을 원칙으로 경전 한편을 선택하여 그에 정통한 법사스님을 모시고 결제기간 중 수선실참과 경학연구에 매진할 경원 대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2년도 동안거 경원 과정 안내



연찬과목	선문철요
교수사	홍선, 무비, 지오, 용학 외 초빙교수
기간	불기2556(2012)년 동안거 (2012년 11월 28일 ~ 2013년 2월 24일)
모집인원	안거학인 00명
용사자격	법납 5년 이상의 비구
제출서류	입방원서(본 원 소정양식) ..... 1부 수행이력서 ..... 1부 승려증 사본 .....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 1부 반명함판 사진(3.5×4.5) ..... 3매

원서교부	범어사 동산 경원, 범어사종무소,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원서접수	범어사 종무소
접수기간	2012년 10월 29일(월) ~ 11월 1일(목) (음력 9월 15일 ~ 18일)
전형방법	사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전형일시	2012년 11월 2일(금) 오후 2시 (음력 9월 19일)
문의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우) 609-8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동산 경원 원장 무비